

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40만 6천 명 증가(1~10월 평균 54만 4천 명 증가)하여 지난 달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
 - 고용률은 60.9%로 전년동기대비 0.4%p 상승(1~10월 평균 60.2%로 전년동기대비 0.7%p 상승)
 - 15~64세 고용률은 65.7%로 0.5%p 상승(1~10월 평균은 65.3%로 1.0%p 상승)
 - 인구 증가(42만 8천 명)를 하회하는 취업자 증가와 비경제활동인구 감소(11만 2천 명)로 실업률이 0.4%p 상승(실업자 13만 4천 명 증가)

- ◎ 최근 취업자 수 증가가 큰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지난 달에 비해 취업자 수가 4만 5천 명이 감소한 데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폭 축소(9월 비경활인구, 16만 3천 명)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
 - 비경활인구 감소는 주로 육아 및 가사(9월 13만 9천 명 감소 → 10월 8만 7천 명 감소)와 쉬었음(9월 6만 3천 명 감소 → 10월 3만 2천 명 감소)의 감소폭 축소에 기인
 - 비경활인구 중 취업준비는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(9월 7천 명 증가 → 10월 2만 1천 명 감소)

- ◎ 10월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었지만, 취업자 수 증가 양상은 이전과 거의 비슷함

- 큰 폭의 인구 증가에 힘입어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, 인구가 줄어든 청년층과 30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에 그쳤음
 - 여성의 취업자 수는 남성과 대등하게 증가
 - 정규직과 임시직의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일용직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. 그러나 임시직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둔화
 - 최근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은 금융·보험업과 농업, 기타서비스업,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의 수는 지난 달에 이어 줄어들었으나, 제조업과 도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
- ◎ 연령대별로 보면,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가 50대 이상과 청년층의 취업자 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, 10대와 30대 후반, 40대, 50대의 고용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고용감소폭이 확대된 점은 특징적임
-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35만 2천 명 증가(50대 16만 9천 명 증가, 60세 이상 18만 3천 명)
 -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인구 감소(5만 9천 명)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개월간의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7만 7천 명 증가.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10대의 큰 인구 감소를 극복한 취업자 증가와 20대 초반(20~24세)의 큰 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
 - 10대와 40대, 50대(여성)는 지난 달에 비해 고용증가폭이 축소되었고 30대 후반의 고용감소폭이 확대. 10대와 40대, 30대의 경우에는 비경활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지만, 50대의 경우에는 비경활인구 감소와 함께 실업자 증가가 크게 영향을 끼침
 - 10대는 도소매와 기타서비스업, 30대 후반은 도소매와 공공서비스, 40대는 제조업과 공공서비스, 50대 여성은 농업과 제조업, 기타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거나 증가폭이 축소되었음
- ◎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, 상용직과 임시직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한다는 점에서는 이전과 비슷하지만, 상용직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임시직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
- 상용직은 36만 1천 명이 증가하고 임시직은 14만 7천 명이 증가
 - 상용직 증가는 50대(21만 6천 명), 60세 이상(7만 8천 명), 15~24세(6만 2천 명),

- 40대(5만 6천 명)가 주도. 업종별로는 제조업, 도소매업, 교육업, 보건복지업이 주도하였음
- 제조업과 공공행정에서 상용직의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, 통신업, 전문서비스업,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상용직의 감소폭이 축소되거나 증가로 돌아섰음
 - 임시직은 25~29세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(60세 이상 6만 5천 명 증가, 15~24세 6만 2천 명 증가).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보건복지업이 임시직 증가 주도
 - 제조업과 도소매업, 사업지원서비스업, 개인서비스업에서 임시직의 감소폭이 확대되거나 증가폭이 축소되었음
 - 일용직은 25~29세(1만 명 증가)와 60세 이상(4천 명 증가)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
 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. 건설업과 음식·숙박업이 증가세를 주도
 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가족무급종사자는 감소세 지속. 농업부문에 큰 폭의 취업자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
- ◎ 업종별로 보면,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3월에 감소세로 돌아선 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(14만 6천 명), 제조업(14만 2천 명)과 서비스업(36만 5천 명)의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
- 농림어업 취업자 수의 감소는 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(4만 4천 명)와 무급가족종사자(6만 3천 명), 일용근로자(1만 7천 명)에서 일어남. 연령대별로 보면, 60대 이상이 77만 명, 50대가 32만 명 감소. 이번 달 감소세 확대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용근로자의 감소폭 확대에 기인
 - 건설업은 임시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소폭의 증가세(4만 7천 명 증가)를 유지
 - 제조업의 고용증가는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음. 상용직이 22만 7천 명 증가한 반면, 임시직과 일용직은 5만 3천 명과 2만 3천 명 감소. 연령대별로는 50대(6만 5천

명)과 20대(6만 4천 명)가 증가를 주도

- 서비스업의 증가세는 도소매업(12만 8천 명), 음식·숙박업(14만 8천 명), 교육업(6만 명), 보건복지업(14만 9천 명)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나, 가구 내 고용(6만 3천 명 감소)은 지속적으로 감소세 유지. 도소매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공공행정과 개인서비스업의 감소세가 확대되었지만, 도소매업과 통신업의 증가세 확대와 전문서비스업과 지원서비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체 서비스업은 증가세 소폭 확대

◎ 중소기업(27만 9천 명)과 대규모 기업(12만 7천 명) 모두 고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축소

- 중소기업의 경우, 임시직(12만 9천 명)에 비해 상용직(24만 6천 명)의 증가폭이 훨씬 큼. 그러나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는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남(상용직 22만 5천 명, 임시직 12만 3천 명)

◎ 입직자(2만 7천 명)와 이직자(11만 2천 명) 모두 감소

- 일용직 입직자는 1만 4천 명 증가하였으나, 상용직과 임시직 입직자는 3만 1천 명과 9천 명 감소. 9월에 비해 일용직 입직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상용직 입직자 감소폭이 확대되었음. 60대 이상의 신규채용은 증가하는 가운데 나머지 연령대의 신규채용은 감소
- 이직자 수 감소는 주로 ‘개인, 가족관련 이유’에 기인. 9월에 비해서는 이직자 수 감소폭이 축소되었는데, 이는 ‘개인, 가족관련 이유’로 인한 이직 감소폭 축소와 ‘작업여건 불만족’으로 인한 이직자 증가폭 확대 때문

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◎ 2014년 8월 명목임금(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 전체)은 전년동기대비 5.0% 증가하였고 실질임금은 3.5% 증가하여 전년동기 실적(각각 4.6%와 3.0%)보다 높음
- 2014년 8월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5.0% 증가(전년동기 4.6%).

- 정액급여가 3.1%(전년동기 4.0%) 증가에 머물렀지만 특별급여가 13.2%(전년동기 7.2%) 증가하였고 초과급여가 11.8%(전년동기 6.7%) 증가했기 때문
- 임시·일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3.2% 하락(전년동기 9.4% 증가)
 - 2014년 8월 협약임금(초과, 특별급여 제외) 진도율은 41.8%로 전년동기(42.5%)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으며, 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4.5%로 전년동기대비 0.5%p 높음
- ◎ 그러나 2014년 1~8월 명목임금은 전년동기 평균대비 2.4% 상승하여 전년동기 실적 대비 1.9%p 낮음
- 상용근로자의 경우, 8.9%만큼 높아진 초과급여(전년동기 0.9%)에도 불구하고 정액 급여와 초과급여의 낮은 인상률(3.1%, -2.5%, 전년동기 4.6%, 3.5%)로 명목임금 총액 인상률은 2.4%(전년동기 4.3%)에 그침
 - 임시·일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0.9% 상승. 이는 전년동기 평균 실적에 비해 5.6%p 낮아진 수준
- ◎ 2014년 8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(21일→20일)로 전년동월대비 3.7% 감소
- 2014년 8월 근로시간은 163.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.3시간 감소
 - 상용직의 경우, 소정근로시간의 축소(155.1 시간, 전년동월 162.6시간)로 초과근로시간의 증가(12.8시간, 전년동월 12.3시간)에도 불구하고 총근로시간은 감소
 - 반면,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19.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.1% 감소
- ◎ 한편 2014년 1~8월 평균 근로시간은 171.3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1.4% 감소
- 상용직의 경우, 초과근로시간이 0.6시간 늘어났음에도 2.9시간 짧아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해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 전년동기대비 2.3시간 줄어듦
 -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18.2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4.8% 감소

최근 해외 고용동향

◎ 한·미·일 회복 지속

- 2014년 3분기 기준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.5%(연율, 속보치)로 시장기대치였던 3.0%를 크게 상회. 지난 10월 말 FOMC 정책결정문(FOMC Statement)에 따르면, 유휴노동력은 점진적으로 축소
- 2014년 3분기 기준 미국 실업률 6.1%(청년 13.4%) 및 고용률 68.1%(청년 47.3%)로 완만하게 회복중
- 2014년 9월 기준 미국 고용률은 68.2%로 전월대비 0.1%p 증가, 청년 고용률은 47.2%로 0.1%p 감소
- 일본은 2014년 2분기 기준 고용률은 72.6%(청년 40.0%), 2014년 8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6.4%(전월대비 0.2%p 상승)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

◎ EU 고용상황 정체

- 2014년 2분기 기준으로 독일의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지만 그리스, 스페인, 이탈리아, 헝가리 등의 고용률은 부진
- 그리스는 7분기 연속 전체 고용률이 50%를 하회
-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고용률은 50% 중반대이며 청년 고용률은 10%대임
- 영국은 2014년 2분기 기준 계절조정 고용률(72.1%)은 전분기대비 0.4%p 소폭 상승하였고, 청년 고용률(48.6%)은 전분기대비 1.0%p 개선